

기생충의 연2회 검변은

왜 필요한가?



■ 韓 仁 洙

'86, '88년에는 기생충 없는 나라

우리나라의 寄生虫 管理上 가장 중요한 지표는 寄生虫 集團檢査 結果에 따른 陽性率(感染率)이라 생각된다. 寄生虫 管理에 있어서 중요 方法은 集團投藥(masschemotherapy), 環境改善(environmental = Sanitation), 및 保健教育(health education)의 세가지를 들을수 있으며 이와같은 方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年代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및 生活水準 向上 즉 環境改善이며, 集團投藥및 保健教育은 保健社會部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本協會가 20여년 동안 寄生虫撲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 寄生虫 感染率

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10%내외로 격감하였으며 대도시 地域의 學生은 1.5%~4.7%에서 농어촌 地域의 일부 학생층은 43.0%까지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4년 춘계 本協會의 學生集團檢便 統計) 그러나 20여년전만 하더라도 80~90%의 寄生虫 感染率이 10%以內로 감소되자 일부 학교, 사업장의 保健 關係 책임자 분들이 寄生虫 管理에 대한 무관심 즉 이젠 集團檢便및 投藥을 中止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각종 문제점을 寄生虫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견해가 집약된 “우리나라 寄生虫集團管理事業의 現況및 展望”(大韓寄生虫學會, 1982.)

기생충 감염을 0% 멀지 않다.

이란 評價報告書를 인용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1. 寄生虫 管理의 重要性

우리나라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피해를 주는 寄生虫은 20여종 기생하고 있으며, 이 기생충은 신체 각 장기에서 기생하여 영양분 탈취, 각종 장기 파열, 특수질환(간암 등)을 유발케하여 생명을 앗아 가기도 한다. 즉 寄生虫 感染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노동력 상실 등은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 일수 밖에 없다.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은 寄生虫 疾患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정도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寄生虫 疾患豫方法을 제정하여 集團 管理를 하고 있다.

同法 內容을 보면 제 3조 2항 및 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保健 社會部長官이 定하는 寄生虫 疾患에 感染되기 쉬운 地域에 있는者, 業務의 性質上 公衆과 接觸이 많은 職業에 종사하는 者는 年 1회以上 檢査 및 治療를 받아야 하며 各級 學校의 長은 年 2회以上 學生에 對하여 寄生虫 感染與否를 檢査하고 이를 治療시켜야 한다고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法을 제정하여 管理할 만큼 중대한 疾患임을 再認識 해야하며 保健 社會部, 文敎部의 적극적인 후원 및 사업장 근로자 등 전국민이 자발적 참여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성공 사례로 각국으로 부터 크나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젠 우리나라도 寄生虫 感染率 0% 시기가 결코 멀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몇

년만 보다 충실히 管理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寄生虫 管理 事業을 그만 둔다면 어떤 결과를 유발할것 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2. 현시점에서 寄生虫 管理를 中止한다면

寄生虫 感染의 疫學的 측면에서 가장 난점은 再感染을 막기 어려운 데에 있다. 선충류 계통의 寄生虫은 채소나 과일, 음식물을 통하여 감염되지만 흡충류(간흡충, 폐흡충, 요꼬가와흡충 등)는 민물고기를 통하여, 조충류(유구조충, 무구조충 등)는 소, 돼지고기를 통하여, 사상충은 곤충(모기) 등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와같은 감염원(중간숙주)이 다양하기 때문에 寄生虫을 근본적으로 박멸하기 위하여 中間宿主를 제거한다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무리를 가져올수도 있다. 그리고 소수의 감염자의 대변이 외계로 배출되어 또다른 감염자가 속출하기 마련이다. Hayashi (1977) 의 公式에 의하면 寄生虫 感染率이 10%일 때 寄生虫 管理 즉 投藥을 中止한다면 中止後 1年제에는 感染率(陽性率)이 12~17% 增加되고, 3年제에는 15~30%, 5년에는 17~38%까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됐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하여 保有虫體數가 많은 重感染例가 속출하여 腸閉塞 등 수술을 요하는 患者가 늘어날 것이며 小兒의 發育 및 영양장애 문제가 다시 대두 되는 등 國民保健上 그문제는 엄청날것으로 예

전국에 간흡충 치료사업 전개

측되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같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단순히 가검물(대변) 수집이 귀찮아서, 토크값도 안되는 법적 수수료가 아까워서 거부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애써 왔던 보람이 수포로 돌아가서 기생충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다시 얻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寄生虫 管理 事業과 投藥은 결코 中斷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寄生虫 感染率이 0%가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박멸을 위해서는 2~3년간은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大韓寄生學會의 建議事項

우리나라 寄生虫 管理 展望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管理한다면 0%의 目標에도 도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서 中斷될 수 있다.

따라서 効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몇가지 建議事項을 提示했는데 그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가. 感染率이 國民學生群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 集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미취학아동(6歲이하)에 대한 全國的 次元的 보호대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나. 現行 初·中·高·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集團管理 體制는 費用과 效率面에서 볼때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되

로 現時點에서 이를 變動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 오히려 寄生虫의 再感染은 비관리 대상인 일반주민으로부터 排出된 虫卵에 의해서 일어날 可能性이 크므로 管理事業의 對象을 全國民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라. 지금 이 寄生虫管理事業의 成功 및 失敗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므로 全國民의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寄生虫疾患에 관심을 가지고 撲滅事業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것이 요망된다.

4. 二次的 管理對象 寄生虫 選定

회충, 편충, 십이장충, 동양도양선충 등 일반 기생충을 제외한 요충, 간흡충, 조충등을 二次的으로 중점관리를 해야 될 무서운 기생충이다. 保健社會部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요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년1회이상 검사및 치료를 적극 유도 하고 있으며 本協會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셀로판후충도말법(Cello phane thick Smear technique)과 스카치테이프 법을 이용하여 검사사업을 확대 실시 하고 있다. 한편 保社部는 풍토병이라 할수있는 간흡충 치료 사업을 1982년부터 국고로 수혜자 부담없이 전국 5대강 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및 치료 사업을 년차적으로 확대 실시 하고 있다. 끝으로 86아세안게임, 88 올림픽을 맞이하여 기생충 없는 국가를 조기에 실현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필자=기협 검사부장>